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기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위험운전행동기준 연구  
The Study of Dangerous Driving Behaviour Criteria based on Digital Tachograph

전진우, 신재승, 최승환, 김남용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5,354건이며, 특히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2.41%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고발생건수 천대 당 42.87건으로 비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건수 천대 당 8.70건보다 약 5배가 높아 교통사고 절감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도로 설계상의 문제, 차량결함, 영세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에 의한 경제적 수지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차량 운행 등 상호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상당부분은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의해 이루어진 사고가 215,330건이며 이 중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121,402건으로 전체 사고발생대비 56.37%를 점유한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하 eTAS)에서 DTG를 분석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위험운전기준에 대해서, 차종별로 위험운전기준이 일괄적이며, 차량성능의 변화로 위험운전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차량성능을 고려한 실차실험과 DTG분석을 통해 실제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차속에 따른 위험운전행동 기준연구를 하며, 후속 연구방향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준에 대한 검증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